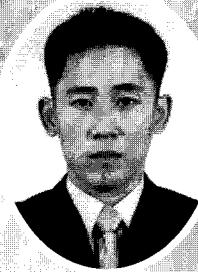


양계산업 전망



성은일

서부베팅사료(주) 연구개발팀
대리

◆ 머릿글

2009(己丑)년의 양계산업을 전망한다는 것은 지난해(戊子) 보다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2008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내수부진으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어 5% 내외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진한 경제실적과 대외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동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소비둔화가 미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09년을 전망하는 자료들은 2009년의 대외여건은 2008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2009년 양계산업을 전망해 봄으로써 양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육계는 상반기 1,503원/kg과 하반기 1,893원/kg, 계란(특란)은 서울기준으로 상반기 1,270원/10개과 1,376원/10개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2008년의 가금생산물의 가격은 2007년에 비해 높게 형성된 것은 생산비의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의 발생이 시장에 적용됨과 동시에 육계에 있어서의 종계입식 수의 저하 및 산란계에 있어서의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08년초 HPAI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양계산업을 유지해온 많은 양계인들에게 있어서 2009년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지 자료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본론

1. 육계

1) 육용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 산업

2008년 10월말 육용종계의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4,853천수로 전년도 대비 6.9%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AI발생이후 6월~8월의 입식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2009년 1분기까지의 생산 잠재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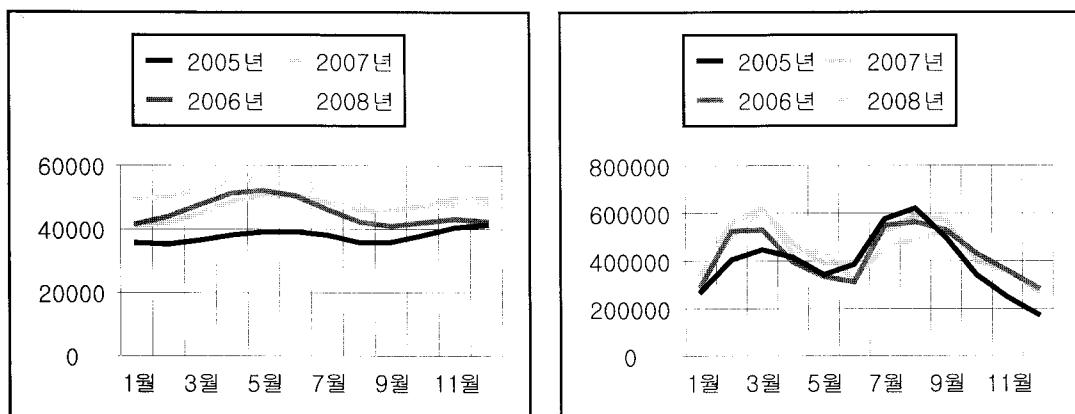
2008년 대비 7.14% 감소될 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그림 1>

2008년의 육용종계사료 배합실적은 2007년도 대비 11% 감소되었으며, 2008년 3월~6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앞선 입식현황 및 생산 잠재력과도 연관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육계사료 생산량도 동기간(2009년 1분기)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변화할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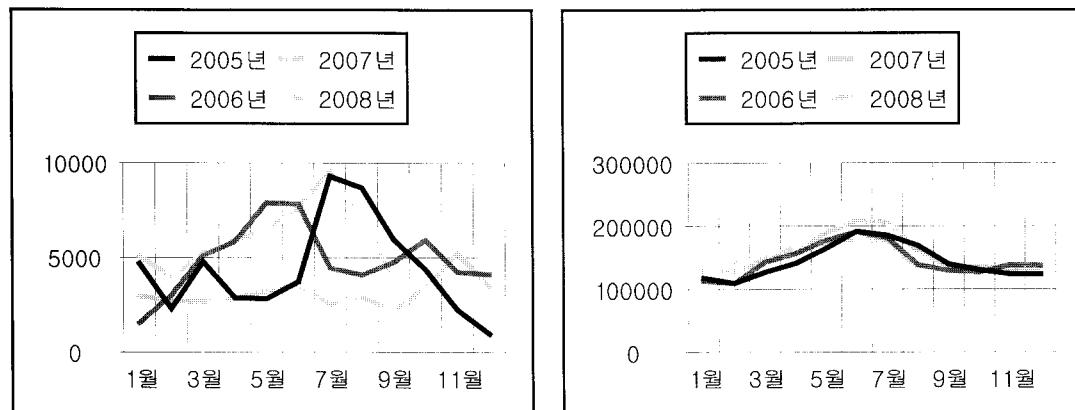
2) 닭고기수급 현황

2008년 11월 기준 민간 비축량은 538만수로 전년 보다 44%나 감소하였으며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 수매 비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주문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 12월부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시행이 실시되면서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가 더 증가 할 것을 보인다. 2009년 초에는 계절적 원인으로 인한 육계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그림 1> 육용종계입식현황 및 육용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그림 2> 육계사료생산실적 및 도축물량,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나, 다만 2008년 닭고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2007년 대비 82% 증가한 5,747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9년에도 수입물량에 따른 국내 육계시세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통계자료를 통한 단기적인 예측을 실시한 것이며 실제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계육의 생산과 함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및 계열업체에서의 철저한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와 함께 항생제 비급여에 따른 생산성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양질의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관련사업인 배합사료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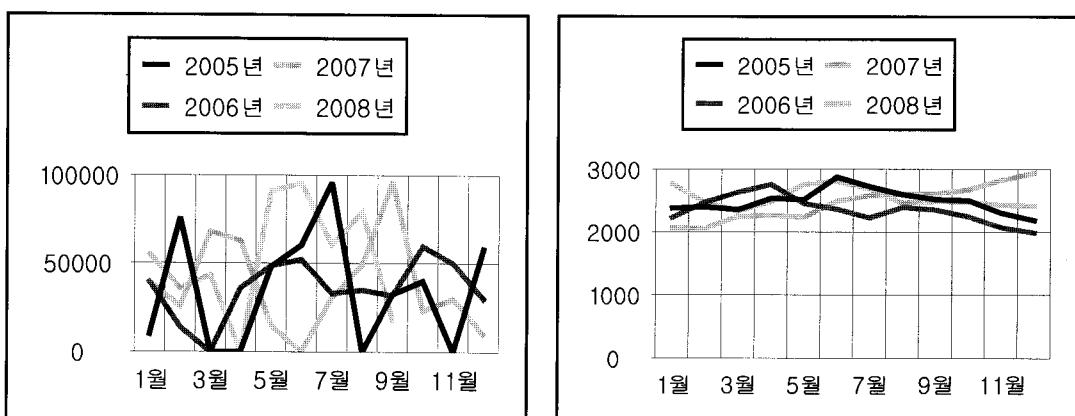
1) 산란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사업

2008년 10월말 산란종계의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517,128수로 전년도 대비 26.2%가 증가하였다. 금년 4/4분기 산란실용계 생산에 영향을 미칠 1/4분기 입식 산란종계는 134,028수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2009년 1/4분기에 영향을 미칠 2/4분기 입식 산란종계는 186,600수로 전년 동기 대비 240.8% 증가하였으며<그림 3>, 2008년 10월말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29,987천수로 9월말 이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7년 말부터 입식된 산란종계가 전년보다 감소된 영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008년 초부터 다시 산란종계의 입식이 증가됨에 따라 2009년 초부터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2) 계란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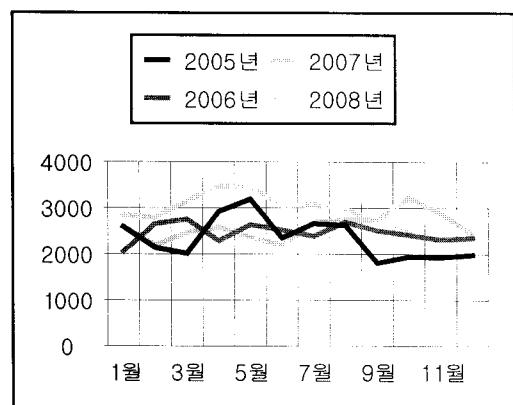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김장철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던 계란수급의 현황과 달리 소비동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언론홍보 및 경기침체로 인한 대체식품으로의 구매력 상승의 영향으로

〈그림 3〉 산란종계입식현황 및 산란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2008년 10월 이후 산란노계 도태수수의 감소는 2009년 계란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계란 수급은 생산과 소비 양측면을 볼 때 안정적인 생산의 기반 하에 소비의 위축 또는 활성화에 따라 결정되어질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산란실용계 판매수수, 대한양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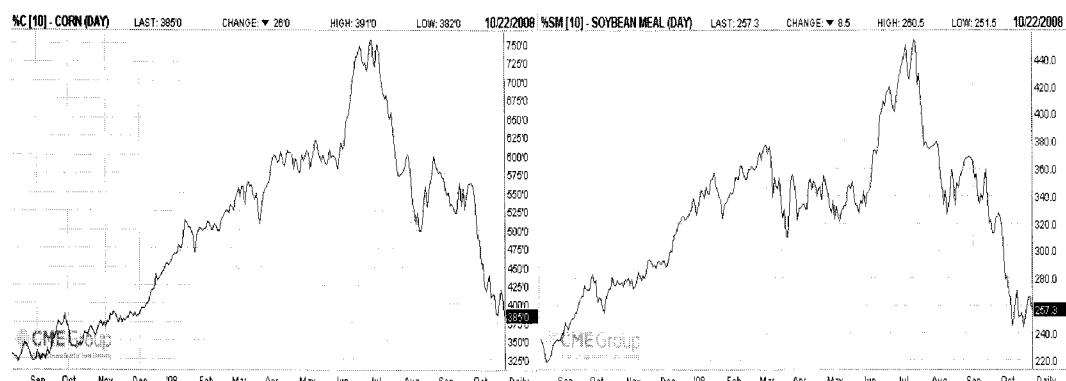
3. 원료가격 및 환율

2008년 11월 기준으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아 올라 있는 상태로 사료 원료(곡물)의 상승과 함께 양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중되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연구로 인해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옥수수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바이오 디젤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대두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료용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과 함께 이로 인한 다른 곡물 및 합성원료의 상승이 동반되었다.[그림5]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던 배합사료 원료의 국제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환율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배합사료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은 원료가격의 상승 및 환율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바 있다. 즉, 환율 10원의 상승은 배합사료가격의 kg 당 3원의 상승요인이 된다.

이처럼 2009년의 상황은 내적으로 양계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적요인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국제 옥수수 및 대두粕 가격동향, Chicago Board of Trade



◆ 결론

2009년의 양계산업은 국내외적인 여건과 앞선 분석자료에서 살펴 본 것처럼 험난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진다. 다만 양계인 스스로가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및 차단방역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한다는 장인정신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계산물을 공급하려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7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인증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2009년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양계인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